

연중 제 25 주 일

# 숲 정 이

발행인	법 석 규
인쇄인	이 수 현
주간	조 성 호
편집	한 상 갑

편집실 : 전주시서노송동560의6  
전주교구청 내 (전화 ⑤5098)

기도서 P. 439 A해

제1독서 (이사 55, 6-9절)  
제2독서 (필리 1, 20-24, 27절)  
복음 (마태 20, 1-16절)

### □ 강론



## 十字架의 어리석음

김 환 철 신부

世人(세속 사람)들이 十字架를 바라볼 때 십자가가 얼마나 어리석어 보일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十字架에 매달아 놓고 조소한 것을 봐도 가히 질작이 간다. “네가 하느님의 아들이라던져...? 너 지금이라도 당장에 내려와 보라. 그러면 너를 하느님으로 믿겠다”(마르 15: 29~) 나만 같아어도 당장에 十字架에서 내려와 조소한 자들에게 귀찮이라도 한대 후려치고 죽어도 죽었을텐데...

예수님은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다. 전능하신 분이시라면 왜 고관집 딸아들로 태어나지 않았을까? 누가 생각해도 예수님은 바보스런데가 많다.

예수님의 측근자들은 대개가 상놈의 취급을 받던 어부들이나 난류배들, 창녀, 문둥이들이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하필이면 부식한 어부 베드로를 으뜸 제자로 삼으셨는지...? 모르고도 모를 일이다.

예수님은 그렇다 치더라도, 예수님을 믿던 天主學쟁이(박해시대 교우를 말함)들마저 왜 그토록 바보스런 것인지 모르겠다.

「안민곶소」이 한마디로 버금가는 용상에 앉힌다는데도 그냥 부모, 처자, 전답, 다 버리고 노들강변 백사장(切頭山)-아니면 으속한 숲속(숲정)에서 주리를 틀러 단칼에 목이 잘리어 죽다니...? 이렇게 바보스런 사람들을 다 봤나?

친애하는 교형자매 여러분!

말망으로 돌진하는 사람들에겐 十字架가 펴 어리석은 것 같이 보이지만 하느님으로부터 선택된 백성들은 十字架야말로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하느님의 능력임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소위 똑똑하다는 사람, 지혜롭다고 뽑내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어리석은 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느님이 하시는 일이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펴 어리석어 보이지만, 사람들이 하는 일보다 더 지혜롭고, 하느님이 하시는 일이 펴 약해 보이지만 사람들이 하는 일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하느님의 지혜는 이 세상에서 멸망해버릴 통치자들의 지혜와는 같지 않습니다.

신앙으로 성숙한 우리는 十字架의 심오한 지혜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상 최대의 上智(상지)입니다.

<1고린토 1: 18~인용>

“오- 十字架의 어리석음이여”

(전동성당 주임신부)



## 죽으면 죽으리라(其二)

예수가 군중에게 끌려온 것이 그들의 시기때문임을 잘 알고 있던 빌라도는, “여러분의 고발을 뒷받침할만한 아무런 죄상도 찾지 못하였소. 나는 이 사람에게서 자형에 처할 죄를 찾아내지 못하였소. 그러니 이 사람을 매질이나 해서 놓아줄 생각이요”라고 세번씩이나 말했다. 그러나 빌라도의 이 주장이 아무런 소용이 없고, 오히려 폭동이 일어나려는 기세를 보고 빌라도는 손을 씻어버렸다. 물론 그의 아내가 보내온(몹시 사나운 꿈자리) 전갈도 크게 작용했으리라.

빌라도는 그의 고민을 간단히 처리해 버렸다. -「폭동이 일어나려는 기세를 보고 물을 떠서 군중 앞에서 손을 씻으며 “당신들이 맡아서 처리하시오.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소” 하고 말하였다,」(마태오 27, 24) 당시의 관습대로 손을 씻는 요식행위도 갖추었고 그의 선언도 뚜렷했다.

이리하여 예수는 십자가형을 받게 되고, 오늘까지도 이와 비슷한 유형의 십자가형들이 계속되어 온다.

하느님의 딸 안이숙이가 교사직을 그만두겠다고 선언하면서까지 신사참배를 끝내 거부할 때, 그 학교의 교장은 이렇게 말했다. -“나도 크리스찬이요. 다른 모든 선생들도 다 크리스찬이고, 안전생 혼자만이 크리스찬인게 아니지 않소. 또 학생들도 모두 크리스찬 가정에서 거의 다 왔어요. 이 학교 자체가 기독교 학교요. 그런데 우리는 이 학교를 경영해 나가기 위해서 일본인이 하라는대로 할 수밖에 없는 까닭에 우리 마음에는 원치 않지만 부종해서 법을 지키고 신사참배를 하는 것이요. 누가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줄 믿어요...”

그러나 안이숙씨는 「죽으면 죽으리라 (죽게 되면 기꺼이 죽겠습니다)」며 기꺼이 감옥을 택했다.

## 숲 정 이 산책



우선하는 사람들이 있어!  
우리는 잊지 않고 있다!



# 죽어야 사는 의미

## □ 머릿말

또다시 9월이 다 지나간다. 복자성월을 연중행사 치르듯이 놀이를 겸한 성지순례나 지명자산 몇번 오르는 일로 매듭을 짓고 넘어가지나 않는지?

오늘을 사는 크리스찬에게 가장 필요한 일은, 이 시대의 징표를 바로 읽어 하느님의 뜻을 찾아내고, 이 시대에 해야 할 말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야 <아버지의 뜻을 하늘에서와 같이 이땅에서도 이루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지?

마침 이달치 어쩔 잡지에 좋은 글들이 있어 이를 나름대로 정리해 본다.

※ 참고...농민과 쌀값/가톨릭 농민회/젊은 장사꾼과 젊은 예수/이재성(성공회 신부)

제대로 죽는 방법/김동길(前 연세대 교수)

## □ 예수께서 오늘은...

비참하고 가련한 사람들을 누구보다도 사랑했던 예수가 그가 사랑했던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버림받고 있는 현실을 보면 무슨 말을 하고 싶을까? 예수는 어느 곳을 기웃거리고 누구와 만나고 싶어할까? 그 예수는 무엇을 보고 싶어하고, 또 어떻게 살아갈까?

희미한 공장 의 퇴색해버린 형광등 밑에서 먼지와 소음과 땀냄새로 범벅이 된 청(※ 심청)의 후배들이 삶터에서, 그리고 그들의 맥박 속에서, 우리는 예수의 신음소리를 듣는다. 노동자의 절규와 그들이 토해내는 거친 숨소리와 무겁게 늘어뜨린 팔다리의 기계적인 허위적거림에서, 그리고 희멀건 종이장처럼 하늘거리는 얼굴 모습에서, 우리는 예수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그의 모습을 볼 수 있다.

## □ 오늘의 현실

우리의 불행은 <발전>과 <성장>이라는 이름아래 가장 중요한 정신의 기둥을 빼앗기고 있는데 있다. 동양 최대의 의사당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동양 최대의 <의사>와 <의결>이 중요하고, 동양 최대의 회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동양 최대의, 아니 참된 한국의 정신이 되살아나는 <문화>가 중요한 것이다. 발전과 성장은 수단이지 결코 목적이 될 수는 없다.

그런데 우리는 <최대>라는 마술적인 용어 속에서, 그리고 감추어진 자기만의 욕심 속에서, 이웃의 아픔을 외면한 채로 병들어 가고 있다. 농민들이 어떻게 살거나 공장 근로자가 어떤 대우를 받고 있거나 자신의 세계에만 만족하며 살고 싶어 한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제 남은 윤리는 진실로 <충>과 <효>밖에 없는지 모르겠다. 이 윤리 개념 속에는 그야말로 절대의 복종과 완전한 현신을 강요하는 뜻이 들어있다. 학교마다 직장마다 공장마다 충을 말하고 효를 주장한다. 언제부터 이 나라에 충과

효가 사라져서 이렇게 구호까지 외치게 되었는지 모를 일이나, 개인의 윤리 관계가 거창한 구호로 채색되어 우리 눈을 어지럽히는 것은 정말 우리 현실의 안타까운 한 모습이다.

부모에게 드릴 따뜻한 밥상을 위해서, 동생의 학비를 위해서 하루 두끼로 배를 채우면서 남보다 열심히 일하고, 그러면서도 자기보다 더 불행한 동료를 위하여 일하던 가뜩한 여공이 자기들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다가 회사에서 쫓겨나는가 하면 공산당으로까지 물려 버리는 경우가 있는 것은 분명히 무엇인지가 <사실을 왜곡>시키고 있기 때문임을 부인할 수가 없다. 지배자와 피지배자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관계에서 한쪽만을 위한 것이 충효의 절대 개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이 <무질서>는 분명히 <부조리>임에 틀림없다.

오늘날 신문 방송에서 <좋아졌네, 좋아졌어> 떠들어대니 농민도 무조건 잘살게 됐다고 생각하지만, 농민의 고충-모내기 전의 혹심한 가뭄극복, 폭우로 인한 수해·병충해 방제와 농약중독·농민의 자살-에 비해 농산물값, 특히 쌀값은 제값을 못받으면 농민의 생활은 더욱 어려워질 수 밖에 없다. 연간 100억불 수출에 1인당 국민소득 1,000불에 가까운 놀라운 경제성장 속에서도 국민중에 가난한 사람들 하면 농민이고, 가장 천대받는 직업이 농업이다. 자본가나 도시사람들 같이 농사지어 잘산다면 농업과 농민을 천대하고 농촌 젊은이들이 기를쓰며 도시로 떠나겠는가?

## □ 맺는 말

농민은 국민의 식량을 생산하고 공업발전의 밑바탕이 되어 왔다. 그리고 하느님의 창조사업에 구체적으로 참여하는 똑같은 천주님의 모상으로 존엄한 인간이다. 이러한 농민들이 경제적인 가난때문에 비인간적인 생활을 하고 존엄성을 잃어간다면, 그래서 농사짓는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천대를 받고 하느님 뜻과는 달리 희망없이 비인간적인 생활을 계속해 간다면, 우리 교회는 마땅히 할 도리를 다 못하고 있는 것이며, 농민은 교회를 떠나고 말 것이다.

위정자로부터 기업인, 종교인, 학자, 농민, 근로자 할 것없이 모두가 이웃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한다. 또 우리는 발전과 성장으로 호도(糊塗)되어진 허구와 허위로부터 탈출하여 바로 우리가 잊고 있는 참 인간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한다. 이제 기업주는 근로자의 소리를 권력자는 국민의 소리를, 학교는 학생의 소리를, 그리고 모든이가 농민의 소리, 그 소리없는 아우성을 들을 줄 알아야 한다.

이 땅의 구석구석에 탄탄히 박혀 있는 민중의 소리를 듣고도 못들은체 지나쳐 버리면 이제 <돌들이 외치게 될>지도 모른다. 들을뿐만 아니라 같이 소리쳐서 일으켜야 한다.

이 일에는 십자가의 고통이 따른다. 그러나 이 일이 바로 오늘을 사는 순교자적인 자세이다. 우리는 죽어서 사는 아니 죽어야 사는 길을 알고는 있다. 그래서 이 9월에 우리는 다시 한번 죽음의 의미를 배워야 한다.

먹을것 때문에 죽이지 않고, 이룸때문에 굶리지 않고 죽을 때때문에 격이지 않는 삶은 참으로 멋있는 삶이다. 그렇게 살기만 하면 죽음조차도 삶과 하나로 얽히어 다만 벽차게 아름다울 뿐이리.

아아, 사는 멋이여, 죽는 멋이여!

☆ 9월은 복자성월 ☆

## 제 3 차

## 순교자 현양 대회

일시...9월 24일<일> 오전 11시

장소...전주 실내 체육관

□주관: 전주교구 평신도 사도적 협의회

### 제4차 전주교구 중·고등학생 교리 경시대회

- 총응시자 : 596명 (중등부 289명, 고등부 307명)
- 평균점수 : 53.9점 (100점 만점)
- 단체 상 : 고창 본당 (11명 참가, 평균 77.2점),
- 참가 상 : 화산 본당 (52명 참가 - 중등부 33명, 고등부 19명)
- 장려 상 : 수류 본당 (초등부 응시 18명, 최고득점 74.5점)
- 개인 상 (상장과 소정의 장학금 지급)
  - 중등부 : 박정숙 (월명동), 이정훈 (서학동), 이수정 (서학동), 장미현 (복자)
  - 고등부 : 박준식 (팔마), 김영순 (황등), 진영숙 (고창), 석정희 (합열)
- 입 상 (상장과 소정의 상품)
  - 중등부 : 홍성희 (팔마), 김순례 (월명동), 김말희 (무주), 한선영 (서학동), 서은영, 이재혁 (남원), 송미숙, 김미경 (금산), 최요한, 강행석, 정성만, 이찬호 (장인동)
  - 고등부 : 송강식, 김선애 (고창), 박영식 (김제), 양기완 (팔마), 박종홍 (둔물동), 박보라 (중앙), 김숙희, 이관기 (복자), 최은남 (서학동)

※ 수상자는 24일 순교자 현양대회에 참가, 수상하기 바랍.

□ 정 답

- 중등부 : 1(4), 2(4), 3(1), 4(4), 5(4), 6(2), 7(4), 8(4), 9(3), 10(4), 11(1), 12(4), 13(2), 14(3), 15(5), 16(2), 17(3), 18(4), 19(4), 20(1), 21(1), 22(3), 23(2), 24(2), 25(2), 26(1), 27(2), 28(3), 29(4), 30(1), 31(4), 32(1), 33(4), 34(3), 35(3), 36(3), 37(7), 38(9), 39(4), 40(1), 41(263대 요한 바오로 1세), 42(생략)
- 고등부 : 1(4), 2(4), 3(1), 4(4), 5(4), 6(2), 7(4), 8(4), 9(3), 10(4), 11(1), 12(4), 13(2), 14(3), 15(5), 16(2), 17(3), 18(4), 19(1), 20(1), 21(1), 22(4), 23(2), 24(2), 25(1), 26(2), 27(2), 28(3), 29(3), 30(3), 31(1), 32(1), 33(4), 34(3), 35(3), 36(4), 37(4), 38(3), 39(4), 40(3), 41(263대 요한 바오로 1세), 42(생략)

### 요심이 (269)



교우들의 전당

## 스타 사진관

전주시 고사동(동아여관) 앞

전화 ㉠ 6094

◇경운기·분무기 전자동 탈곡기 트랙터·각종 농기구일절 도산매

### 대동공업(주)전북총판

대표 오 승 엽(바오로)

이리시 평화동 20번지

☎ 9000, 9001, 9002, 9003번

◇가정용 목욕탕, 온수, 난방 시설 및 수리

### 한국流 온수 온돌 공사

(정음메리점)

정음전화 주간2719번 야간 4195번

대표 : 교아오스딩

※교우분들께는 1할을 할인해 드리고 있습니다.

★양심을 찾자★

현대칼라 특약점

카메라 대여 학교앨범 각종 사진 출사

### 중앙 사진관

이리시 창인동 중앙시장 사거리

이리여고 입구 전화 7901

한 원 규 (야고버)

### 직원모집 공고

1. 모집인원 ○명
2. 자 격
  - 가. 연령 55세미만의 여성
  - 나. 의모단정하고 음식솜씨 있는분
3. 제출서류
  - 자필이력서1통, 주민등록등본1통
4. 제출기간 78. 10. 10. 17시까지
5. 면접시간 78. 10. 11. 오전 10시

전주가톨릭센터 전화 ㉠ 3498

□여성 여러분에게

멋을 선사합니다□

### 파티마의상실

최 훈 자(로사리아)

전주시 중앙동 3가 28번지

(구라파 제과점 옆)

전화 ㉠ 6219

☆사진예술 창조의 집☆

현대칼라 특약점

### 현대카메라 D·P점

現代人은, 現代칼라로, 現代카메라 D·P점에서

현상·인화·확대·카메라 대여

교우님들께 특별할인 합니다

T. ㉠ 6360

(전주 동양아파트 정문앞)

代表 홍성조(그레고리오)

제 4 지구 각 분당 소식



1. 제 3 차 순교자 현양대회에 적극 협조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천주교 전주교구 평신도 사도직 협의회장 조성호(야교보)
  2. 복자성일 특별미사-25일<월>~30일<토> 새벽 6시, 숲정이 순교자 현양탑, 집전: 한봉섭 신부
  3. 베델 성서 연구회-25일<월> 오후 7~9시 반, 가톨릭 센터
  4. 마인드 콘서트 공개강좌-28일<목> 오후 6시 30분 가톨릭 센터, 강사: 윤파로 선생
- 전국 울드레아-10월 3일<화> 오전 9시 반, 서울 잠실 학생체육관  
① 참가 희망자는 교구 사무국에 문의 바람-관광버스 4대 계약-선착순  
② 참가지 철두산 등 순교성지와 용인 자연농원을 둘러서 음  
③ 참가비 2,000원과 그 외의 교통비 약간
- 전주 교구 꾸르실로 주간예 김영진(베네딕도) 형제 임명  
□ 추석에 교도소 방문: 김환철·이순성 신부님, 유귀남, 이현재, 차동주 각5,000원 감사드립니다.

(중앙)

전화 ③3651 3651  
3874 3874

주임 신부 서웅복  
보좌 신부 오승연  
사도 회장 이영배

1. 순교자 현양대회: 24일(일) 오전 11시/실내체육관  
※ 오전 10시30분(공식미사) 미사는 없음
  2. 범영배(라파엘) 신부님 영명축일  
29일(금)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3. 유아세례: 29일(금) 어머니 미사 후
  4. 빌려간 도서 반납하세요(사무실에)
  5. 애령회 퀵레회: 30일(토) 오후 1시30분
  6. 공식미사 전례담당: 10월 1일  
복자-입주대, 김낙준, 해설-장남수
- 지난주 봉헌금: 177,296원

(노송동)

전화 ③7032 7032

주임 신부 공아영  
보좌 신부 권홍희  
사도 회장 김성록

1. 사도회 퀵레회: 오늘저녁 8시 30분
  2. 한국 순교복자 대축일: 9월 26일 오후 7시 30분에  
대축일 미사가 있습니다. 많이 참석하세요
  3. 성지에서 미사봉헌: 29일(금) 오전 10시에 치명산  
누갈다 묘지에서 어머니미사를 봉헌합니다
  4. 교무금 납부의 달: 분납제로 봉헌하여 분당운영에  
협조합니다
  5. 유아영세식: 30일(토) 오후 1시 30분에 어린이 영세  
식이 있습니다. 꼭 부모님과 대부모님을 모시고 오  
세요. 대부모님을 모시지 않은 어린이에게는 영세를  
줄 수 없습니다
  6. 미사시간 엄수: 미사시간은 정확히 지키고 반드시  
미사도구(성서, 기도서, 성가집)를 지참합니다
  7. 추석 합동미사 예물: 132,150원 대단히 감사합니다
- 지난주 봉헌금: 64,435원

(덕진)

전화 ③2182 2182

주임 신부 서석기  
보좌 신부 강덕행  
사도 회장 유제상

1. 제 1 회 분당 기념일 행사: 10월 3일 준비하세요  
동반, 공소별, 배구, 줄다리기 달리기(할머니, 할아  
버지) 터치볼 기타
  2. 치명산 참배미사: 30일 토요일 저녁 5시  
많은 참석 바람. 기도서, 묵주 지참하세요
  3. 봉헌금과 주일을 왜 미루시는지요  
봉헌금 완납하여 분당살림 도움입니다. 미사시간 철저
  4. 공소 미사시간 안내(요일과 시간은 같음)  
매월 첫주 목요일-내동리, 둘째주 목요일-미산리  
셋째주 목요일-동산촌, 네째주 목요일-전당리  
시간은 저녁 7시 30분 많은 신자 참석 바람
  5. 감사, 축하, 기일미사는 분당 사무실에 접수 바람
  7. 구역장님, 반장님께서는 오늘 3시미사 후 회합 있음
  8. 젊은이를 위한 특별미사: 매주(화) 저녁 7시30분  
(사제관 2층 회의실) 준비물: 성경, 성가집
- 지난주 봉헌금: 84,090원

(복자)

전화 ③5238 5238

주임 신부 김종택  
사도 회장 조성호

1. 사도회 퀵레회: 다음주 공식미사 후
2. 반회장 회의: 25일 저녁 8시
3. 4지구 주일학교 체육대회: 10월 9일, 해성학교
4. 1일교장: 다음주-김방웅 형제
5. 모든 신자들은 신용조합에 가입하여 도움주고 도움  
받으시다
6. 약속된 봉헌금 미수없이 봉헌하고 있는지...

□ 지난주 봉헌금: 162,105원

(서학동)

전화 ③2276 2276

주임 신부 오현택  
사도 회장 박장준

1. 애령주일: 저녁미사 후
  2. 사도회 퀵레회: 10월 1일 10시미사 후
  3. 매키성월: 10시미사 후 복주기도
  4. 교무금 완납하여 어려운 분당 도움이다
  5. 신축헌금 현황  
제5반: 박장준 100,000, 박형식 40,000,  
이경애 15,000, 김민준 15,000, 김현희 10,000  
6반: 김태수 30,000, 김동신 10,000, 문영웅 20,000  
전봉주·김문성 각 15,000, 송수남 4,000, 최재철  
5,000, 전홍용 3,600  
7반: 김순애 5,000, 송기봉 7,500, 박순성 8,000,  
임화순 7,000, 김용철 12,000, 순금순 6,400
- 지난주 봉헌금: 42,425원

(숲정이)

전화 ③7366 7366

주임 신부 이대권  
사도 회장 이강노

1. 순교자 현양대회: 9월 24일 전주 실내체육관  
11시미사 빠짐없이 참석 바랍니다
  2. 성지참배: 10월 1일 오전 6시 출발  
회비: 선착순으로 접수합니다
  3. 누갈다 유치원 운동회: 10월 3일(해성학교)
  4. 누갈다 부녀회: 10월 7일<토>
  5. 전국 울드레아: 10월 3일(서울 잠실 실내체육관)
- 지난주 봉헌금: 110,230원

(전동)

전화 ③3222 3222

주임 신부 김환철  
보좌 신부 이순성  
사도 회장 유석중

- ※ 영세식: 9월 30일(토) 7시 30분 월~금: 매일교리
  1. 꼬미씨음: 현양대회중 덕진성당에서
  3. 글라라 형제회: 현양대회 후
  3. 젊은이들의 피정: 10월 14~15(토. 일)  
노송동 피정의 집
  4. 성지순례(출미): 9월 26일 7시출발
  5. 성령 기도회: 매 금요일 미사후
  6. 타 성당구역 교우 교역 이전요망
- 지난주 봉헌금: 207,150원 교무금: 345,400원  
위령 미사예물: 392,600원

(파티마)

전화 ③7249 7249

주임신부 문정현  
사도회장 채수현

1. 사도회 및 각구역장 정기총회: 10월 1일 저녁미사후
  2. 미사시간 변경: 10월 8일부터 저녁미사 오후 7시
  3. 성지순례: 고산 천호 10월 3일 오전 10시 분당 출발  
10월 1일까지 접수 마감
  4. 가정방문: 9월 26 시완산 4구역, 27일-안행동,  
28일-효자동 1가
  5. 교무금: 10월은 교무금을 완납하여 분당의 월동준비  
를 시작합니다
- 지난주 납입자: 양현홍(1만원), 유종소(1만2천원),  
장영식(4천원), 양경주, 권정자(1천원), 김모국(2천원)
6. 수녀원 증축기금: 공사중단 신입금 조속 납부요망  
미신입자는 신입을 촉구합니다.  
납입자: 고재만, 조규동(5천원), 양현홍(2만원), 유  
종소(1만원), 서숙자(2천원), 남일계 126,000원  
신입누계 519,000원
  7. 추석 연미사 봉헌예물: 60,000원
- 지난주 봉헌금: 43,735원